

한국인의 성별 지식의 암묵적 표상: 남녀 범주의 비대칭성*

이 재 호[†]

방 희 정

최 상 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성별 범주는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회 지식이다. 선행 연구에서 성별 범주인 남녀 범주가 균형적이고 대칭적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참가자 성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표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이재호와 방희정, 2003). 이 연구는 선행 연구의 실험 조건과 실험 과제를 변화시켜 참가자 성에 따른 성별 범주의 비대칭적 표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실험 1은 선행 연구의 성별 범주의 전형성 변인을 적용하고 긴 SOA(stimulus onset asynchrony, 650ms) 조건에서 명명과제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성별 범주의 여성성 효과와 속성 전형성과 성별 범주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실험 2에서는 점화조건은 선호도에 따라 긍정과 부정 단어를 조작하였고, 목표 단어는 전형성에 따라 전형과 비전형 단어를 조작하였다. 즉 정서적 평가 속성의 점화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점화와 목표 단어의 시간간격은 SOA 150ms이었으며 어휘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범주와 참가자 성의 복잡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여성 범주에서는, 여자는 긍정이 부정보다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지만 남자는 그 차이가 없었다. 여자는 전형이 비전형보다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지만 남자는 역방향이었다. 남성 범주에서는, 여자는 부정이 긍정보다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지만 남자는 그 차이가 없었다. 남녀 모두 비전형이 전형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적었다. 남녀 모두 여성성 효과가 관찰되었고, 여자는 일치성 효과가 적용되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았다. 암묵수준에서 성별 지식이 참가자 성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표상됨을 다시 확인하였다.

주요어 : 성별 지식, 점화효과, 전형성, 선호도, 사회 인지

* 이 연구는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지원(KRF-2002-074-HS1002)으로 수행되었다.

실험 2의 일부 자료는 김미라 박사와 오경기 박사에 의해서 수집되었다. 세 분의 심사위원께서 귀중한 조언을 주셨으며, 감사드린다.

† 교신저자 : 이재호, (156-756)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leejh@cau.ac.kr

사회 정보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우리는 지식을 적용하여 매우 쉽고 간편하게 사회 정보를 표상하고 적용한다. 이러한 인지 처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은 사람의 지각과 인지의 과정에서 인물, 성별, 연령, 직업, 인종 등의 범주 지식(categorical knowledge)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물이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이면 연령은 얼마인지 등 이런 방식으로 범주적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체를 쉽게 파악한다. 그런데 이들 과정은 의식적으로 작동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동적으로 진행되며 심지어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의식하지도 못한다(Bargh, et al., 1992; Devine, 1989; Fiske, 1998; Kunda, 2000, McGarty, 1999). 사람들은 과연 이런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수준에서 사회 지식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인의 이해에 적용하는가? 이것이 사회 인지의 핵심적인 질문이 된다. 대인 지각은 대인에 대한 사회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초기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지식의 하나가 바로 성별(gender) 지식이다. 지각 수준은 남녀에 대한 대상의 초기 분석 과정이며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저장되었던 범주 관련 지식들이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대인이 여자로 범주화되면 ‘아름다운, 치마 입은’ 등의 여성의 전형적인 속성들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대인의 지각된 정보와 그 범주의 활성화된 속성이 통합되어 대인의 심적 모형을 구성한다(예; Greenwald, et al., 2002; Macrae, & Bodenhausen, 2000).

사회 인지의 자동적 혹은 암묵적 수준의 표상은 전략적 혹은 외현적 수준의 표상에 비해서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 자동적 과정은 자극 정보에 대해서 매우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처리자의 인지적 자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에 암묵적

과정은 자신이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특징을 지니며, 자신의 의식에 독립적인 처리가 가능하다(예; Kunda, 2000; McGarty, 1999; Macrae, & Bodenhausen, 2000). 만약 사회 인지에서 두 유형의 과정이 우세하고 이들 과정의 결과가 행동으로 반영되며 자신이 통제하고 의식하는 과정에 해리되는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 사회 인지의 암묵적 수준의 과정과 자동적 처리에서 반영되는 변인의 효과는 사회 정보의 인지 과정과 행동에 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두 과정은 엄격하고 정교한 실험 방법이 적용되어야 탐지될 수 있다. 인지 일반이나 사회 인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연구 방법이 점화기법(priming method)¹⁾이다(예; 이재호와 김성일, 1998; 이재호와 최상진, 2003).

성별 범주의 지식은 일반 인지의 비사회 정보(예; ‘자동차’, ‘과일’)의 이론에 기반하였고 사회 범주의 지식 효과는 일치성 효과(congruency effects)에서 출발하였다(Fazio, et al., 1986; Kunda, 2000). 즉 성별 범주에 일치하는 정보들은 불일치 정보에 비해서 쉽게 점화되며,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성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상대 성별은 부정

1) 점화기법: 이 방법은 점화자극과 목표자극의 쌍에 대한 반응을 측정한다. 점화자극을 컴퓨터 화면에 일정시간 제시한 다음 목표자극을 제시하고 목표자극의 반응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이때 점화자극은 인지 표상을 활성화시키는 단서가 되고 목표자극은 점화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된 표상이 된다. 이런 방법은 두 자극의 심적 연결 관계를 측정하게 한다. 예를 들어, 점화자극이 제시된 다음 목표자극이 제시되는 시간이 400-500ms 이내이면 목표자극의 반응은 자동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점화자극이 역치하 수준으로 제시되거나 목표자극의 반응에 의식 과정이 적용되지 않는 과제이면 암묵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이재호와 김성일, 1998 참조).

적으로 평가된다(Rudman, Greenwald, & McGhee, 2001). 범주 일치성이나 평가 일치성 등의 효과에 관한 이론들은 사회 범주가 자아의 정체성과 함께 대칭적이고 안정적인 표상임을 가정한다(예; Greenwald, et al., 2002). 그러나 최근 들어 점화기법을 적용한 연구들에서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사회 범주의 긍정성 우위 효과(Klauer, et al., 1997; 이재호 등, 2000), 여성성 우위 효과(이재호와 방희정, 2003; 이재호, 조궁호, 오경기, 김미라, 2001), 범주내 점화의 비대칭성 효과(이재호와 이정모, 2000; 이재호, 이정모, 및 전문기, 2002) 등이 제기되었다. 이는 사회 지식이 대칭적이고 안정된 표상만을 구성하고 있다는 전통적인 입장에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예; Medin, Lynch, & Solomon, 2000).

평가 일치성 효과에 반하는 긍정성 효과

사회적 범주가 내포하는 개념들의 속성을 분석해보면 속성의 선호도 차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reenwald와 Banaji(1995)에 따르면, 성별이나 인종의 표상은 긍정 혹은 부정의 선호도 차원으로 구성된다. 긍정 속성은 긍정 속성에 자동적으로 점화되고 부정 속성은 부정 속성에 자동적으로 점화되며, 두 속성이 교차되면 점화효과가 감소된다. 즉 평가의 일치성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사회 인지의 선호도 차원이 사회 정보의 처리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주장이며 동시에 긍정과 부정 속성이 사회 인지에 대칭적으로 표상된다는 입장이다. 많은 연구들이 속성의 평가적 일치성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예; Banaji & Hardin, 1996; Blair & Banaji, 1996; Fazio, et al., 1986). 그러나 평가의 일치성 효과에 대치되는 결과들도

제시되었다. 즉, 긍정 혹은 부정 속성이 특정한 조건에서만 관찰되던지(De Houwer, Hermans, 및 Spruyt, 2001), ‘긍정-긍정’인 조건이 ‘부정-부정’, ‘긍정-부정’, ‘부정-긍정’ 조건에 비해서 점화 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Klauer, Rossnagel, & Musch, 1997; 이재호, 조궁호, 오경기, 김미라, 2001).

Klauer 등(1997)은 성격 특질(traits)을 일치조건(예, ‘긍정-긍정’ 혹은 ‘부정-부정’)과 불일치조건(예, ‘긍정-부정’ 혹은 ‘부정-긍정’)으로 조작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하고 목표 단어가 긍정인지 혹은 부정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짧은 SOA(SOA 0ms)²⁾에서는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이외의 SOA(SOA 100ms-1200ms)에서는 ‘긍정-긍정’ 조건이 ‘부정-부정’ 조건에 비해서 평가 판단이 빨랐다. 즉 긍정성 효과가 관찰된 것이다. 뒤이어 이재호 등(2000)은 선호도 차원의 점화효과의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시간경과 패러다임(SOA 150, 500, 1000ms)과 명명과제(naming task)³⁾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점화 조건의 일치성 효과보다는 긍정성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 2) SOA는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의 제시시간의 간격을 나타낸다. 점화 자극이 제시되어 그 자극이 사라진 다음 목표 자극이 제시되는 시각 간의 모든 시간이다. 이 SOA는 자동적 과정과 전략적 혹은 통제적 과정을 분리하는 실험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SOA가 400-500ms 이내이면 자동적 과정의 효과를 반영하며, 그 이상의 지연시간이면 전략적 과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이재호와 김성일, 1998).
- 3) 명명과제는 목표 자극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면 준비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목표 자극을 발성하는 과제이다. 이 과제의 종속 측정치는 목표 자극이 제시된 시점에서 목표 자극에 대한 발성이 마이크에 입력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다. 이 과제는 다른 과제에 비해서 이분적인 반응이 요구되지 않으며, 반응 시간이 짧고, 번산이 적으며, 오류도 극히 낮은 특징을 지닌다. 참가자의 반응 전략이나 의도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암묵적 수준의 처리 과정에 민감한 과제이다(이재호와 김성일, 1998).

‘긍정-긍정’ 단어쌍이 ‘부정-부정’ 단어쌍에 비해서 목표단어의 명명시간이 빨랐다. 더욱이 긍정성 효과는 SOA 150-250ms에서만 관찰되었고, 계속된 연구에서 De Houwer, Hermans, 및 Spruyt (2001)는 평가의 일치성 효과가 점화 자극을 손상시킨 조건에서만 관찰되는 결과를 얻었다.

평가 일치성에 대한 긍정성 효과는 긍정 속성간 점화가 부정 속성간 점화보다 크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예; 이재호, 등, 2001). 이는 선호도를 상위 범주로 보면 긍정과 부정이 서로 비대칭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긍정 속성은 부정 속성에 비해서 속성간의 의미적 관계가 강하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런 해석은 성별이나 인종의 평가 일치성이 정서적 제약이라면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대칭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유사하게 Glaser와 Banaji (1999)는 긍정이나 부정이나 서로 평가가 극단적인 속성이 점화되면 평가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기보다는 평가 일치성의 역점화(reverse priming) 효과가 관찰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모두 암묵적 과제를 사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적어도 암묵적 수준에서는 정서적 정보가 일반 의미 처리에 비해서 다른 기제에 근거하여 작동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Musch & Klauer, 2003 참조).

사회 지식의 인지적 구성요소: 전형성 효과

사회 지식은 정서적 기제로만 작동하는 것인가? 사회 지식의 태도에는 정서적 평가와 더불어 인지적 제약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즉 성별 지식은 대인에 대한 개념의 범주이다(예; Kunda, 2000; 이재호, 등 2001). 이재호 등(2001)은 시간 경과적 점화 패러다임(SOA 150-1000ms)과 명명과제를 사용하여 성별 범주의 암묵적 표상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성별 속성을 여성과 남성의 속성으로 구분하고 이들 단어를 점화-목표 조건으로 조합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하고 목표단어에 대한 명명과제를 실시하였다. 일치성 효과에 근거하면 같은 동성의 속성들이 이성의 속성들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어야 한다(예; Banaji & Hardin, 1996; Blair & Banaji, 1996). 그러나 ‘여성-여성’ 조건이 ‘남성-남성’ 조건이나 ‘여성-남성’ 혹은 ‘남성-여성’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또한 참가자 성에 따라서 조건들의 점화효과가 달랐다. 여자는 여성이나 남성 범주에 따른 속성간 점화효과에 차이가 없었지만, 남자는 자신의 남성 속성에 비해서 여성 속성에 대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더욱이 이들 결과는 SOA 250-500ms 사이에서만 관찰되었고, SOA 1000ms에서는 모든 조건에서의 차이가 없었다. 성별 범주의 여성 속성이 다른 속성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된 것은 성별 범주인 여성과 남성 범주가 대칭적이고 병렬적으로 표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짧은 SOA에서 관찰된 것은 여성성의 점화효과는 자동적 과정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남자 참가자에게도 여성성 효과가 관찰된 것은 성별 지식이 참가자 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성되기보다는 남녀 성별 범주를 통합하는 표상 차원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Greenwald 등(2002)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자는 ‘potency’하며 여자는 ‘warmth’하다는 고정관념을 지닌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성 단서가 주어지면 여성 단서가 주어진 조건보다 ‘potency’에 대한 점화가 빠르며, 여성 단서가 주어지면 남성 단서가 주어진 조건에 비해서 ‘warmth’에 대한 점화가 빠르다고 보았다. 즉 성별 범주에 따른 속성 일치성 효과를 예견할 수 있다. Rudman 등(2001)은 암묵연합과제(implicit association task, IAT)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남자는 ‘여성-power’ 조건보다 ‘남성-power’ 조건에서 IAT 점수가 컸지만 여자는 두 조건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남성의 전형적인 속성으로 알려진 ‘potency’ 속성을 남녀 참가자가 다르게 표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더욱이 여성의 전형적인 속성으로 알려진 ‘warmth’에 대한 IAT 점수는 여자는 예측대로 관찰되었지만 남자는 ‘female-warmth’보다 ‘male-warmth’에 대한 반응이 빨랐다. 이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성별 범주의 표상이론에 대치되는 결과이다. 참가자의 성, 즉 자신(self)과 성별 범주, 즉 사회 집단(social group)의 정체성의 일치성 효과가 적용되기 어려운 결과이다. Rudman 등(2001)은 성별 지식의 암묵적 수준의 표상은 자신(self)의 지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자나 남자 모두 남성 속성보다 여성 속성에 대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사회적 범주 속성보다는 긍정적 속성 혹은 바람직한 속성의 효과가 성별 범주의 표상에 작용한 결과임을 시사한다(예; 이재호 등, 2000).

연구문제

서구의 사회 인지 이론의 핵심적인 가정은 범주와 속성 또는 자신과 집단의 평가나 점화의 균형성(balance)과 일치성(congruency)에 기반한다(Greenwald, 등, 1995; 2002). Greenwald 등(2002)은 서구의 사회 인지의 이론을 종합하여 사회 지식은 ‘자신-집단-속성’의 균형적 일치성(the balance-congruity principle)에 의해서 표상된다고 하였다. 즉 ‘나는 긍정, 나는 여성, 그러므로 여성은 긍정’. 사회 지식을 자신의 표상과 사회 집단의 표상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속성으로 균형적 일치성을 기반한 표상으로 보았다. 이는 사람들이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자신에 근거하여 사회 지식을 사회 표상으로 구성함을 함의한다. 그런데 이들 이론은 여자 참가자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대안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Aidman & Carroll, 2003; De Houwer, Hermans, 및 Spruyt, 2001; Glaser & Banaji, 1999; Klauer, Rossmagel, & Musch, 1997; 이재호와 방희정, 2003; 이재호 등, 2000; 2001).

이 연구는 첫째, 참가자 성에 따라서 성별 범주의 점화효과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여자와 남자는 여성과 남성 범주를 서로 대칭적으로 표상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성별 표상에서 인지적 구성요소의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성별 범주의 속성 전형성(typicality) 효과이다. 이는 인지 일반의 표상 차원으로 알려졌지만 선행 연구에서 그 효과가 체계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예; 이재호와 방희정, 2003). 셋째, 앞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의 변화이다. 실험과제의 중다성이다(예; 이재호와 김성일, 1998). 이 연구는 명명과제와 어휘판단과제를 사용하여 성별 표상에 관한 수렴된 결과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험 1: 성별지식의 전형성 효과

실험 1은 이재호 등(2001)에서 관찰되었던 여성성 효과와 이재호와 방희정(2003)의 연구에서 관찰되었던 성별 전형성의 점화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성별 범주의 점화에서 남성 속성간 점화보다 여성 속성간 점화가 크게 관찰되는 현상이 여러 연구에서 관찰되었다(예; 이재호와 방희정, 2003; 이재호 등, 2000; 2001). 이는 참가자 성에 따라 성별 범주의 표상 수준이 다름을 시

사한다. 이재호와 방희정(2003)은 여성성 효과를 SOA 250ms에서 관찰하였다. 이 SOA는 점화 속성의 자동적 처리를 반영하는 시간간격이다. 이재호 등(2001)은 SOA 250-500ms에서 여성성 효과를 관찰하였지만 SOA 1000ms에서는 그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 Keenan, 등(1990)이나 Neely (1991)에 따르면 SOA 400-500ms가 자동 과정과 통제적 전략 과정의 경계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는 여성성 효과를 자동적 과정이 반영되는 SOA가 250-500ms에서만 관찰하였다. 이 연구는 SOA를 650ms로 지연하여 선행 연구의 결과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만약 SOA 650ms에서도 여성성 효과가 관찰된다면 전형성 효과는 자동과 전략 과정에 관계없이 암묵적 수준에서 작용한다는 증거가 된다.

방 법

참가자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48명이 참가하였다. 이중 여학생은 31명, 남학생은 17명이었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참가자의 성(여자, 남자), 성별 범주(여성, 남성), 점화 조건(전형, 비전형), 목표 조건(전형, 비전형)이었다. 이 중에서 참가자의 성은 피험자간 변인이었으며, 나머지 세 변인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2 \times 2 \times 2) \times 2$ 혼합요인설계를 적용하였다.

실험재료

전형성 변인에 따른 점화단어와 목표단어는 이재호 등(2001)의 연구에서 조사된 성별 단어를 사용하였다. 참가자의 성별 범주와 전형성 평정

치를 근거로 하여, 여성과 남성의 각 범주 내에서 전형성 점수가 높은 단어 20개, 전형성 점수가 낮은 단어 20개를 선정하여 '전형-전형', '전형-비전형', '비전형-전형', '비전형-비전형'의 네 개 조건을 구성하였다. 각 조건은 5개의 단어가 무선적으로 짝지어졌다. 남녀 성별에 각 20개씩의 점화-목표 단어쌍이 구성되었고, 점화-목표 자극쌍의 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점화단어와 목표단어의 순서를 달리하는 두 개의 이형을 구성하였다. 참가자는 두 이형 중에 한 이형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실험재료의 단어는 글자의 수가 3-5자가 되도록 통제하였다. 참가자는 전형성에 따른 각 조건을 모두 경험하면서 각 조건에 제시된 자극쌍은 한번씩 반복되게 하였다(부록 1 참조).

실험절차

실험은 개인별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의 지시문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었고, 참가자가 스스로 키보드를 사용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실험 절차는, 먼저 컴퓨터 화면에 '*****' 표시가 500ms동안 제시되었고, 그 표시가 사라지면 점화단어가 300ms동안 제시되었다. 점화단어가 제시된 후 350ms가 경과된 다음 목표단어가 제시되었다(SOA 650ms). 자극 제시의 통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점화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의 제시 여부만 확인하게 하였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지시하였다. 또한 점화단어 이후에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되면 참가자에게 준비된 마이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표단어를 소리내어 발음하도록 하였다. 마이크에 발생된 신호는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되었고, 반응시간은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된 시점부터 참가자가 단어의 발음을 개시

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며, 이 시간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파일로 기록되었다. 그런 후, 다음 시행이 같은 절차로 반복되었다. 한 시행과 다음 시행간의 시간 간격은 1000ms였다. 본 실험이 실시되기 전에 실험절차의 이해와 명명반응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10번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에 사용된 단어는 본 실험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였으며, 의미적으로도 무관한 단어였다. 본 실험의 시행절차는 연습시행과 동일하였다. 참가자는 모두 40개의 점화-목표 자극쌍에 대한 반응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는 IBM/PC 펜티엄 기종이었으며, 실험 프로그램은 Quick Basic으로 구성하였으며, MS-DOS 6.20 상에서 수행되게 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결과 및 논의

참가자는 명명과제에서 목표단어에 대한 명명 오류는 거의 하지 않았다. 반응시간이 200ms 이

하인 반응과 표준편차 3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0.1%). 목표단어의 명명시간 평균이 표 1에 제시되었다. 목표단어의 명명시간을 변량 분석한 결과, 성별 범주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46)=4.63$, $MSe=968.57$, $p=.037$]. 여성 범주(555ms)가 남성 범주(562ms)에 비해서 7ms가 빨랐다. 점화 조건의 주효과 [$F(1,46)=6.46$, $MSe=711.37$, $p=.014$]와 목표 조건의 주효과 [$F(1,46)=9.02$, $MSe=674.79$, $p=.004$]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점화 조건은 전형 단어(562ms)가 비전형 단어(555ms)보다 7ms 느렸으며, 목표 조건은 전형 단어(554ms)가 비전형 단어(562ms)보다 8ms 빨랐다.

실험 1에서는 성별 범주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여성 범주와 남성 범주의 속성간 의미 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증거이다. 남성 범주에 비해서 여성 범주의 속성들간의 의미 관계가 강하다는 증거이다. 즉 성별 지식은 여성 범주의 속성들이 남성에 비해 표상의 중심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 효과는 SOA 250ms에서 관찰된 이재호와 방희정(2003)의 결과나 이재호 등(2001)의 SOA

표 1. 성별 범주와 전형성에 따른 점화-목표 조건의 명명시간의 평균(ms)

성별범주	점화	목표	참가자 성	
			여자	남자
여성	전형	전형	553 (13)	554 (18)
		비전형	559 (16)	556 (22)
	비전형	전형	548 (13)	549 (18)
		비전형	553 (13)	565 (18)
남성	전형	전형	562 (14)	573 (19)
		비전형	560 (13)	579 (18)
	비전형	전형	551 (13)	544 (18)
		비전형	556 (13)	571 (18)

() 안은 표준오차

250-500 ms의 결과와 일치한다. 실험 1의 SOA 650ms의 조건은 자동적 처리보다는 전략적 처리도 가능한 지연조건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와 실험 1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별 범주의 여성성 효과는 적어도 SOA 650ms까지는 지속되는 강한 효과이다.

범주 속성의 전형성에 따른 점화효과의 차이는 여성 범주보다 남성 범주에서 관찰되었다. 목표 자극의 경우 전형단어 조건이 비전형단어 조건보다 명명시간이 빨랐지만, 점화 자극의 경우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즉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의 조합에 따라 점화효과가 다르게 관찰된 것이다. 점화 자극은 비전형단어이고 목표 자극은 전형단어인 조건일 때, 다른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가장 크게 관찰되었다.

이재호 등(2001; 2003)은 일반 대상 범주(예; ‘가구’)를 사용하여 ‘전형-전형’ 조건(예; ‘책상-옷장’)에 비해서 ‘비전형-전형’ 조건(예; 거울-옷장)에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전형성 변인은 소속된 범주의 상위 범주나 범주 구성원 간의 유사성이 높은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면 전형 속성이 비전형 속성보다는 점화효과에 영향

력이 크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응시간은 역으로 나타났다. 즉 대비적(contrastive) 점화효과가 관찰된 것이다. 유사한 현상이 인종 편견에 관한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Glaser와 Banaji(1999)는 ‘백인-긍정’과 ‘흑인-부정’의 조건이 ‘흑인-긍정’과 ‘백인-부정’의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적은 역점화 효과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선호 속성의 강도가 너무 강한 자극들이 연결하게 되면 동화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대비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들의 연구와 실험 1은 조작된 변인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결과이다. 즉 이 둘은 정서변인과 인지변인이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정서(긍정 혹은 부정 속성)나 인지(전형 혹은 비전형 속성) 모두 점화와 목표의 속성 차원의 강도가 강하면 동화적으로 점화효과가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비적인 역점화 효과가 나타남을 시사한다. 그런데 대비 점화가 범주에서만 관찰되고 특히 남자 참가자에게서 두드러졌다. 반면에 여성 범주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재호 등(2001; 2003)의 일반 범주나 Glaser와 Banaji(1999)의 평가 속성에서 관찰된 대비적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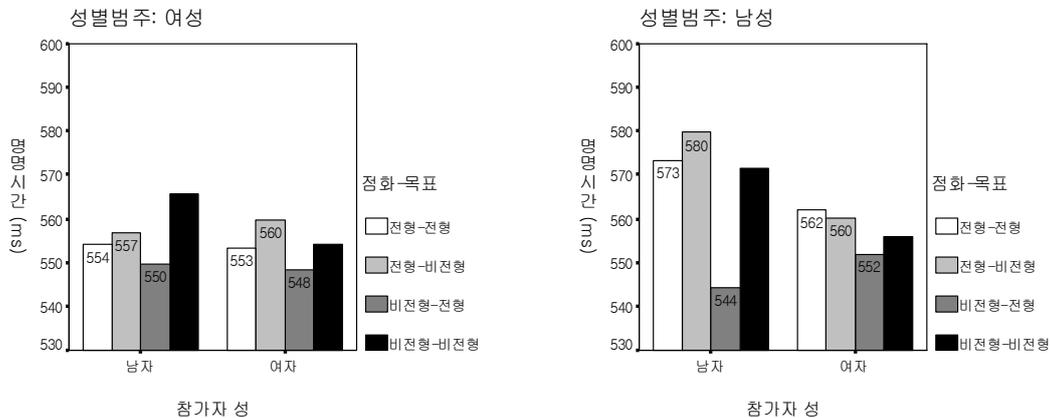


그림 1. 성별 범주와 전형성에 따른 점화-목표 조건의 명명시간의 평균 (ms)

화와는 다른 양상이다.

실험 2: 선호도와 전형성의 상호작용

성별 지식은 평가 속성과 전형 속성으로 구성되었다. 즉 정서와 인지의 복합적 표상이다(예; Kunda, 2000). 실험 2에서는 성별 범주의 선호 속성과 전형 속성의 조합을 사용하여 속성간의 점화효과를 추가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재호, 조혜자, 및 방희정(2001)은 성별 범주인 사람 이름을 점화 자극으로 하여 성별 범주의 선호도와 전형성 변인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범주-긍정’이 ‘범주-부정’보다 그리고 ‘범주-전형’이 ‘범주-비전형’보다 일관되게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그런데 참가자 성에 따라 남자는 전형성 변인의 효과가 관찰되었고, 여자는 두 변인이 모두 점화효과에 작용하였다. 이는 참가자 성에 따라 선호도와 전형성에 대한 점화효과가 다를 수 시사한다. 이재호 등(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사람의 범주를 확인하면 성별 전형에 근거한 단계적 표상을 구성하는 반면 여자는 전형 속성과 더불어 그 속성의 긍정적 평가도 함께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여자와 남자는 성별의 인지 표상보다는 정서 표상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Rudman 등(2001)은 남녀 모두 자신에게 바람직한 속성에 대한 IAT 점수가 크다고 하였지만, Carpenter(2000)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자신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며, Aidman과 Carrol(2003)은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내외집단의 긍정과 부정 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다고 하였다. 실험 1의 결과에서 보면 여성성 효과가 관찰되어 Rudman 등(2001)의 결과를 지지하였지만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자신의 성별 속성에 대한 대비 점화효과를 보였다. 이는 현상적으로 Glaser와 Banaji(1999)의 역점화 효과와 일치한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성별 범주위 정서와 인지적 속성이 참가자 성에 따라 점화효과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험 2는 실험 1의 SOA 650ms의 명명과제 패러다임을 SOA 150의 어휘판단과제 패러다임으로 변경하였고, 성별 범주의 선호도 변인과 전형성 변인의 관계가 점화효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 법

참가자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22명이 참가하였다. 이중 여학생은 43명(여성범주 20명, 남성범주 23명), 남학생은 79명(여성범주 36명, 남성범주 43명)이었다. 성별 범주별로 분류하면 여성범주에 56명이 무선할당되었고, 남성범주에 66명이 무선할당되었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참가자의 성(여자, 남자), 성별 범주(여성, 남성), 점화 조건(긍정, 부정), 및 목표 조건(전형, 비전형) 이었다. 이중에서 성별범주와 참가자 성은 피험자간 변인이며, 점화, 및 목표 조건은 피험자내 변인으로 조작하였다. 각 실험은 성별 범주를 달리한 2×2(2×2) 혼합요인설계를 적용하였다.

실험재료

이재호 등(2001)의 연구에서 조사된 속성 형용사에서 선호도와 전형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점화자극은 선호도에 따라 40개의 단어가 선정되었다. 이중 20개는 긍정단어이며 20개는 부정단어였다. 목표단어는 여성단어 40개와 남성단어 40개를 전형성 평정치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부록 2 참조). 두 조건에 중복되는 단어가 없도록 통제하였으며 선호도 평정치와 성별의 전형성 평정치에 근거하여 40개의 점화와 목표 단어쌍을 구성하였다. 점화-목표 단어쌍은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참가자에게 실험하였다. 또한 어휘판단과제는 예와 아니오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아니오 반응을 위해서 80개의 비단어를 준비하였다. 이 단어들은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었다(예; ‘설바디’)

실험절차

일반적인 실험의 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험 2는 SOA를 150ms로 통제하였고, 목표단어의 어휘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점화단어가 100ms 제시되고 난 다음 50ms 지연시간이 뒤따르고 목표단어가 제시되었다. 어휘판단과제는 점화단어가 제시된 다음 목표 단어의 반응이 실험 1의 명명과제와는 다르다. 따라서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점화단어가 제시된 다음 목표단어가 제시되면 목표단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있는 단어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만약 의미있는 단어이면 ‘예’ 키를 누르고, 아니면 ‘아니오’ 키를 누르게 하였다. 이때 반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요구하였다. 점화단어가 화면에 나타난 시점부터 참가자가 반응키를 누르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록되게 하였다. 한 참가자는 연습시행 10회, 실험조건 40회, 삽입시행 80회 모두 130회의 반응을 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참가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15-20분이 소요되었다.

결과 및 논의

여성속성

어휘판단과제의 반응오류는 모두 6.5%이었다. 어휘판단을 잘못된 반응과 어휘판단의 시간이 300ms보다 짧거나 표준편차 3을 넘는 긴 반응(1429ms)은 모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목표단어의 어휘판단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점화조건의 선호도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경계수준이었다 [$F(1,54)=3.87$, $MSe=806.50$, $p=.054$]. 긍정단어(560ms)가 부정단어(567ms)보다 7ms 빨랐다. 남자 참가자는 긍정단어(560ms)와 부정단어(562ms)의 차이가 2ms이었지만 여자 참가자는 긍정단어(559ms)와 부정단어(573ms)의 차이가 14ms이었다 [$F(1,19)=3.60$, $MSe=1050.98$, $p=.073$]. 목표 조건의 전형성과 참가자 성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54)=12.24$, $MSe=1071.39$, $p=.001$]. 남자 참가자는 전형단어(570ms)가 비전형단어(552ms)보다 18ms 느렸고 [$F(1,35)=18.18$, $MSe=692.35$, $p=.001$].

여자 참가자는 전형단어(560ms)가 비전형단어(572ms)보다 12ms 빠른 경향을 보였다. 여성 속성의 선호도 점화에 의한 전형성 목표의 점화효과는 참가자 성에 따라 상호작용의 효과가 분명하였다. 선호도의 점화조건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전형성의 목표조건의 경우 남자는 전형단어가 비전형단어보다 느렸으나 여자는 오히려 전형단어가 비전형단어에 비해서 빠른 경향을 보였다. 성별 범주가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남자는 여성의 전형 속성에 대한 대비적 점화효과가 있으며 여자는 여성 속성의 긍정적 점화에 동화적 점화효과가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이는 참가자 성과 성별 범주의 일치성 효과에 일치하는 결과이다(표 2 참조). 즉 여자는 여성 범주에 대해서 ‘긍정-전형’ 조건에 대

표 2. 성별 범주와 점화-목표 조건에 따른 어휘판단시간의 평균(ms)

성별범주	점화	목표	참가자 성	
			여자	남자
여성	긍정	전형	551 (19)	566 (14)
		비전형	567 (21)	554 (15)
	부정	전형	569 (21)	575 (16)
		비전형	577 (20)	549 (14)
남성	긍정	전형	614 (24)	592 (17)
		비전형	559 (16)	558 (12)
	부정	전형	572 (17)	574 (12)
		비전형	560 (19)	579 (14)

() 안은 표준오차

한 점화가 ‘부정-비전형’ 조건에 대한 점화보다 크게 관찰된 것이다(예; Greenwald, et al., 2002).

남성속성

어휘판단과제의 반응오류는 모두 3.5%이었다. 어휘판단을 잘못된 반응과 어휘판단의 시간이 300ms보다 짧거나 표준편차 3을 넘는 긴 반응(1490ms)은 모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목표단어의 어휘판단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점화조건의 선호도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F(1,64)=2.87, MSe=1924.68, p=.095$]. 점화조건의 선호도와 참가자 성의 이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경계수준이었다 [$F(1,64)=3.65, MSe=1924.68, p=.060$]. 남자 참가자의 경우 긍정단어(575ms)와 부정단어(576ms)간의 차이가 1ms이었지만 여자 참가자는 긍정단어(587ms)가 부정단어(566ms)보다 21ms나 느렸다 [$F(1,22)=4.07, MSe=2359.85, p=.056$]. 그리고 목표조건의 전형성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64)=17.62, MSe=1901.24, p=.000$]. 목표조건의 전형단어(588ms)는

비전형단어(564ms)보다 24ms 느렸다. 점화조건과 목표조건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64)=15.10, MSe=1658.92, p=.001$]. 점화조건이 긍정단어이고 목표조건이 전형단어인 조건(603ms)이 비전형단어인 조건에 비해서 44ms 느렸다. 반면에 점화조건이 부정단어인 조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 성과 무관하게 남녀 두 집단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남성 속성의 점화효과에서 두드러진 것은 목표조건의 전형성과 점화조건과 목표조건의 상호작용이다. 이들 효과는 참가자 성과 무관하게 남녀 두 집단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단지 점화조건에서 여자 참가자는 선호도에 따른 효과를 남자보다 강하게 보여주었다. 남성 속성은 ‘긍정-전형’ 조건에서 점화양상이 남녀 참가자 두 집단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다른 조건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매우 느려졌다. 경향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늦었다(표 2 참조). 즉 남성 범주는 ‘긍정-전형’ 조건에서 대비적 점화가 관찰되었고, 실험 1의 ‘전형-전형’ 조건의 대비 점화와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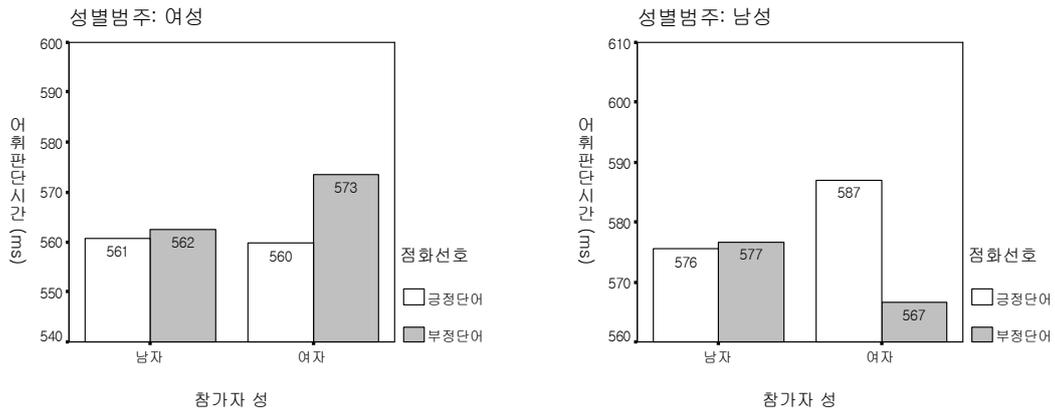


그림 2. 성별 범주와 점화조건이 선호도에 따른 어휘판단시간의 평균 (ms)

하였다. 두 조건 모두 남성 범주에서 참가자 성에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종합 논의

최근에 사회 인지의 새로운 이론이 제안되었

다. Greenwald 등(2002)이 제안한 통합이론(the unified theory of social cognition)이 그것이다. 이 이론은 인지 구성체와 정서 구성체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태도, 고정관념, 자존감, 및 자기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지와 정서의 균형과 일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은 긍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자기가 참조하는 집단을 내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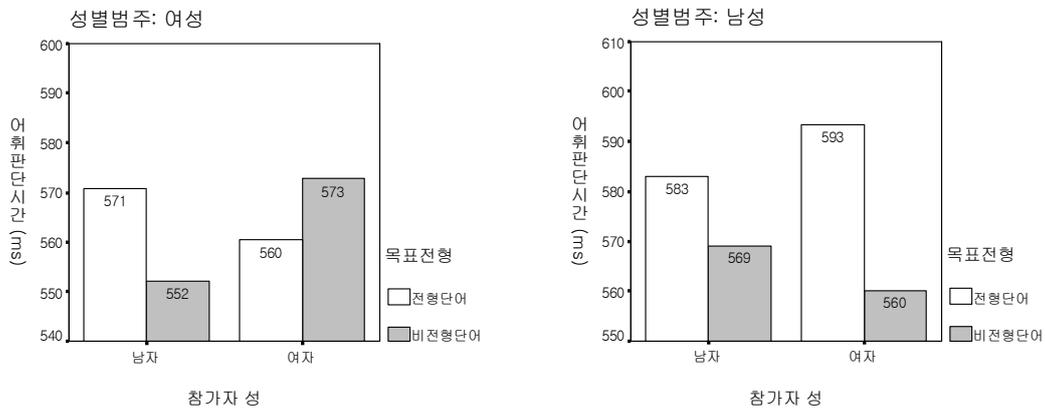


그림 3. 성별 범주와 목표조건이 전형성에 따른 어휘판단시간의 평균 (ms)

으로 보며 그 집단의 속성 또한 긍정적이어야 한다. 즉 ‘나는 여자이다. 여성은 긍정적이다. 나는 긍정적이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 사회 지식은 ‘자기-집단-속성’의 균형적 관계가 기본이었다. 특히 통합이론은 암묵적 수준의 사회 인지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암묵연합검사를 사용하였다(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Greenwald 등(2002)의 통합이론을 이 연구에 연계하면 다음의 세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통합이론은 여자 참가자를 사용한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이는 남녀가 동일한 표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남녀 참가자를 비교한 경우에도 과연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예; Aidman & Carroll, 2003). 둘째, 암묵연합과제가 사회 인지의 암묵적 수준의 측정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유사한 암묵과제에서도 수렴적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예; De Houwer, 2002; Musch & Klauer, 2003). 셋째, 통합이론은 사회 인지의 제반 현상을 인지와 정서를 통합하여 설명하려고 하면서도 정서적 변인만을 조작하였고 인지적 변인에 대한 통제는 적용되지 않았다(예; Kunda, 2000).

성별 범주의 여성성 효과

성별 범주는 여성과 남성의 두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 범주는 성별의 의미를 나타내는 속성을 표상하고 있다. 이들 속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선호도에 따라 긍정과 부정 속성으로 분류되며, 상위 범주의 심적 거리의 전형성에 따라 전형과 비전형 속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분류는 일반 인지의 범주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재호 등(2001)의 연구에서 관찰된 ‘여성-여성’ 속성간의 점화조건이 ‘남성-남성’이나 교차조건인 점화조

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된 결과는 성별 범주의 속성간 응집성이 다름을 시사한다. 또한 실험 1의 성별 범주에서 여성 범주가 남성 범주의 명명시간보다 빠른 것은 선행 연구를 확장한 결과이다. 여자가 여성 속성이나 범주에 대한 표상의 접근성이 남성에 비해서 우세한 것은 자아 정체성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남자가 여성 속성이나 범주에 대한 표상에서 여성성 상위 효과가 관찰된 것은 자아 정체성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여자는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대한 표상과 외집단에 대한 표상을 단계적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남자는 오히려 반대의 표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선호도의 긍정성 효과

통합이론의 자존감 효과에 따르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편향하는 경향이 있다(예; Greenwald, et al., 2002). 그렇다면 참가자의 성에 관계없이 긍정성 효과가 관찰되어야 한다. 이재호 등(2000)의 연구에서는 참가자 변인에 관계없이 긍정성 효과가 SOA 250-500ms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재호, 조혜자, 및 방희정(2001)이 성별 이름을 점화하여 선호도와 전형성의 효과를 측정하였을 때, 전형성 변인의 효과는 참가자 성에 일관되게 관찰되었지만 선호도 변인은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두 연구는 긍정성 효과가 암묵적 수준에서 관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점화자극에 따라 참가자 성의 효과가 다름을 보였다. 즉 속성간 점화 조건에서는 참가자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성별 범주(예; 사람이름)를 점화한 조건에서는 성에 따른 점화효과의 차이가 관찰된 것이다. 이 연구의 실험 2에서는 점화자극을 속성의 선호도 변인으로 조작하여 목표자극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남자는 선호도 변인의 효과

가 없었지만 여자는 남성 범주에 대해서는 부정 속성이 긍정 속성보다 점화효과에 크게 작용하였으며, 여성 범주에서는 역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종합하면, 선호도 특히 긍정성 변인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민감하게 작용하며, 특히 여자는 ‘내집단=긍정, 외집단=부정’의 점화 양상을 분명하게 보였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정서적 정보의 처리에 민감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속성의 전형성과 대비 효과

사회 지식은 인지와 정서의 통합적 체계로 보면서도 속성의 평가성 차원에 대해서 인지의 전형성 차원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사회 범주를 인지 일반의 범주 이론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속성의 전형성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어야 한다. 전형성은 일반 인지에서는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차원이다(예; 이재호와 이정모, 2000; 이정모와 이재호, 2000). 이재호와 방희정(2003)은 성별 범주와 속성의 전형성 변인을 조작하여 점화효과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속성간 점화에서 전형성 변인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이재호, 조혜자, 및 방희정(2001)은 성별 범주인 사람 이름을 점화한 조건에서는 속성의 전형성 효과를 관찰하였다. 두 연구 모두 SOA 250ms에서 명명 과제를 사용하였다. 같은 실험 패러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관찰된 것은 점화자극의 특성 ‘속성-속성’ 조건과 ‘범주-속성’ 조건이라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전형성 차원이 속성 자체에 내재된 표상보다는 상위 범주의 관계에서 구성되는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즉 실제 대상이나 상위 범주의 점화에 의해서만 속성간의 차별적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속성-속성’ 조건에서도 전형성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실험 1에서는 ‘전형-전형’ 조건의 반응이 오히

려 느린 경향을 보였으며, 반면에 ‘비전형-전형’ 조건이 다른 조건에 비해서 빠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형 속성간에는 동화적인 촉진적 점화효과보다는 억제적인 대비적인 점화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Blair와 Banaji(1999)에서 관찰된 극단적 평가 속성간의 역점화 효과와 유사한 것이다. 실험 2에서 ‘긍정-전형’ 조건이 다른 조건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느렸다. 특히 이는 남성 범주에서 관찰되었고, 남녀가 동일하였다. 이는 남성의 전형적 속성이 긍정적 속성과 만나면 점화효과가 촉진되기보다는 억제되는 대비적인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는 이재호와 방희정(2003)의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그들은 남성 범주의 남자 참가자의 반응에서 ‘전형-전형’ 조건의 역점화효과를 관찰하였다. 동일하게 실험 1의 남성 범주의 ‘전형-전형’ 조건이나 실험 2의 남성 범주의 ‘긍정-전형’ 조건에서 참가자 성과 무관하게 남녀 두 집단에서 일관되게 역점화 효과가 관찰되었다.

여자 참가자의 역점화 효과는 외집단의 전형적 속성에 대한 부적 점화효과로 설명될 수 있지만 남자 참가자에게서 자신의 성별 범주를 대표하는 속성에 대해서 왜 역점화효과가 관찰된 것인가? 이재호, 이정모, 및 전문기(2002)는 상위 범주는 하위 범주의 전형성에 의해 촉진적으로 점화되는 반면 하위 구성원간 즉 전형-비전형 구성원 간에서는 전형-전형이 비전형-전형보다 점화효과가 적음을 관찰하였다. 그들은 이런 현상을 전형 속성이 후속 전형 속성을 촉진적으로 동화하기보다는 대비적으로 억제하는 과정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유사하게 Glaser와 Banaji(1999)는 속성의 평가가 극단적인 자극간에는 역점화 효과가 관찰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극단적 자극이 같은 범주인 조건에서 관찰된 것이다. 그런데 왜 여자에게서는 내집단

에 대한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지만 남자에게서는 내외집단에 역침화 효과가 관찰된 것인가?

참가자 성에 따른 사회 지식의 표상 차이

일반적으로 자아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의 관계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관계이며 안정된 대칭적 관계인 것이다(Vonk, 2002). 즉 자신과 집단이 일치하는 조건은 긍정 평가를 하며 불일치 조건은 부정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자 성 변인을 추가하면 그 양상은 복잡해진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성차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었다. Lorenzi-Goldi, Eagly, 및 Stewart(1995)는 남자는 성별 내집단보다 외집단을 더 동질적으로 판단하지만 여자는 대조적으로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더 동질적으로 지각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회상의 외현적 과제를 사용하였지만 암묵적 과제를 사용한 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Ekehammar, Akrami, 및 Araya(2003)는 외현적으로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이민자에 대한 강한 편견을 보였지만 암묵적으로는 그 반대라는 증거를 인종 편견의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비록 성별 태도는 아니지만 암묵과 외현 수준의 태도 해리를 관찰한 것이다. 두 연구는 여전히 참가자 성과 성별 범주의 표상을 대칭적으로 보는 입장이었다.

Carpenter(2000)는 성별 범주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자신의 성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다는 증거를 IAT에서 보였다. 성별의 속성간 일치성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였으며,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성별 태도가 명확하였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Aidman과 Carroll(2003)는 역시 IAT를 사용하여 여자는 내외집단에 대한 긍정과 부정 태도가 분명하였지만 남자는 내외집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는 암묵적 과

제를 사용한 연구이면서 참가자 성과 성별 태도가 비대칭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성별 범주의 정서적 선호도와 인지적 전형성 변인과 참가자 성의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점화과제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실험절차 또한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실험 과제와 실험 조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성별 지식의 여성성 효과와 참가자 성에 따른 범주 표상의 비대칭성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첫째, 여자와 남자 모두 남성보다 여성 범주의 속성에 대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으며, 둘째, 여자는 성별 범주에 대한 내외집단의 표상 차이가 명확하였다. 즉 내집단에 긍정적 평가와 외집단에 부정적 평가를 표상하며, 여성의 전형성에 대해서는 정적으로 표상하며 남성의 전형성에 대해서 남성보다 더 대비적인 표상을 구성하였다. 셋째, 남자는 남성이나 여성 범주에 대해서 정서적 점화효과가 미약하며 전형성에 대해서는 성별과 동일하게 대비적인 표상을 구성할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여성 범주의 긍정 속성은 남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부정 속성은 강하게 대비적 표상을 구성하였다.

결론적으로 인지적 관점에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성별 범주와 내외집단의 균형과 일치를 지향하는 정교화된 표상체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남자는 성별 범주나 내외집단의 표상 구분이 여자보다 미약하며, 오히려 자신의 전형적인 남성 속성에 대한 강한 대비효과를 일으켰다. 사회 지식의 심적 모형이 왜 남녀가 다르게 관찰된 것인가? 사회 지식의 심적 기제를 밝히는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종합틀에서 접근하는 추가 연구가 절실하다.

참고문헌

- 이재호, 김성일 (1998). 언어 이해과정의 연구 방법. 이정모, 이재호 (편), *인지심리학의 제문제 II: 언어와 인지* (155-182쪽). 서울: 학지사.
- 이재호, 방희정 (2003).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 성별의 속성 전형성과 집단 일치성의 점화효과. *인지과학*, 14, 37-48.
- 이재호, 오경기, 김미라, 조궁호 (2000). 성별 선호도의 긍정-부정성이 자동적 평가에 미치는 효과.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24-225.
- 이재호, 이정모 (2000). 개념 지식의 유형에 따른 표상 차이: 범주와 각본의 위계성과 전형성 비교. *인지과학*, 11, 73-81.
- 이재호, 이정모, 전문기 (2002). 개념 유형에 따른 전형성의 비대칭적 점화효과: 대상범주와 행위각본의 차이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4, 15-32.
- 이재호, 조궁호, 오경기, 김미라 (2001). 사회적 범주의 암묵적 표상 구조: 성별 고정관념의 비대칭적 점화효과. *인지과학*, 12, 43-54.
- 이재호, 조혜자, 방희정 (2001).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구조: 성별단서, 범주전형성 및 성별선호도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 49-67.
- 이재호, 최상진 (2003). 문화적 개념의 인지적 표상과 활성화 과정: 한 개념의 담화분석과 온라인 점화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 1-16.
- 이정모, 이재호 (2000). 대상과 행위의 개념적 표상 차이: 명명과제의 점화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2, 201-214.
- Aidman, V. A., & Carroll, S. M. (2003). Implicit individual differences: Relationships between implicit self-esteem, gender identity, gender attitud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 19-37.
- Banaji, M., & Hardin, C. (1996). Automatic stereotyping. *Psychological Science*, 7, 136-141.
- Bargh, J. A., Chaiken, S., Gwendler, R., & Pratto, F. (1992). The generality of the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893-912.
- Blair, I. V., & Banaji, M. R. (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42-1163.
- Carpenter, S. (2000). *Implicit gender attitud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USA.
- Ekehammar, B., Akrami, N., & Araya, T. (2003). Gender differences in implicit prejudi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509-1523.
- De Houwer, J. (2002).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s a tool for studying dysfunctional associations in psychopathology: Strengths and limitation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3, 115-133.
- De Houwer, J., Hermans, D., & Spruyt, A. (2001). Affective priming of pronunciation responses: Effects of target degrad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85-91.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 (1986). On the automatic

-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Fiske,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357-411). NY: McGrawHill.
- Glaser, J., & Banaji, M. R. (1999). When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Reverse Priming in automatic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669-687.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n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 3-25.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Keenan, J., Potts, G., Golding, J., & Jennings, T. (1990). Which elaborative inferences are drawn during reading? A question of methodologies. In D. Balota, G. Flores d'Arcais, & K. Rayner (Eds.), *Comprehension processes in reading*. Hillsdale, NJ: Erlbaum.
- Klauer, K. C., Rossnagel, C., & Musch, J. (1997). List-context effects in evaluative prim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3, 246-255.
-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ss.: MIT Press.
- Lorenzi-Cioldi, F., Eagly, A. H., & Stewart, T. L. (1995). Homogeneity of gender groups in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193-217.
- Macrae, C. N., & Bodenhausen, G. V. (2000). Social cognition: Thinking categorically about oth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93-120.
- McGarty, C. (1999). *Categorization in social psych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 Medin, D. L., Lynch, E. B., & Solomon, K. O. (2000). Are there kinds of concep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121-147.
- Musch, J., & Klauer, K. C. (2003). *The psychology of evaluation*. Hillsdale, NJ: Erlbaum.
- Neely, J. H. (1991). Semantic priming effects in visual word recognition: A selective review of current findings and theories. In D. Besner & G. W. Humphreys (Eds.), *Basic processes in reading: Visual word recognition* (pp. 264-336). Hillsdale, NJ: Erlbaum.
- Rudman, L. Greenwald, A., & McGhee, D.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164-1178.
- Vonk, R. (2002). Effects of stereotypes on attitude inference: Outgroups are black and white, ingroups are shaded.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 157-167.

Implicit Knowledge of Gender in Korean: Asymmetric Representation for Gender Category

Jae-Ho Lee

Chung-Ang University

Heejeong Bang

Ewha Woman University

Sang-Chin Choi

Chung-Ang University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implicit representation of gender knowledge using primed naming task and lexical decision task for prime-target pairs.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ere presented gender's attributes as primes at SOA 650ms and were asked to pronounce person's name which were differed in typicality of gender's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 gender effects, typicality effects, and interactions were found. In Experiment 2, Participants were presented gender's attributes as primes at SOA 150ms and were asked to decision to gender attributes which were differed in preference and typicality of gender's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positive preference effect was observed in female attribute only, but reversed typicality effects were found in male attribute.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from a point of view of graded representation of gender categories and asymmetrical processing to priming conditions.

Keywords : gender knowledge, priming effect, typicality, preference, social cognition

부록 1. 실험 1에서 사용된 점화단어와 목표단어

점화-목표 조건	여성 단어				남성 단어			
	점화	평정	목표	평정	점화	평정	목표	평정
전형-전형	화장	5.70	눈물	5.25	군대	6.38	건장한	5.32
	가슴	5.64	치마	5.11	수염	5.94	명예욕	5.23
	꾸미는	5.47	감성적	5.10	힘센	5.61	늑대	5.21
	예쁜	5.15	아름다운	5.07	바지	5.52	듬직한	5.18
	긴머리	5.13	질투	5.05	강인한	5.41	넓은어깨	5.15
전형-비전형	눈물	5.25	내성적	3.55	건장한	5.32	고집	5.59
	치마	5.11	냉정한	3.53	명예욕	5.23	똑똑한	3.58
	감성적	5.10	이중적	3.50	늑대	5.21	거친	3.26
	아름다운	5.07	구두	3.49	듬직한	5.18	날카로운	3.16
	질투	5.05	소극적	3.36	넓은어깨	5.15	무식한	2.97
비전형-전형	조용한	3.80	화장	5.70	여유	3.65	군대	6.38
	계산적	3.70	가슴	5.64	나약한	2.60	수염	5.94
	신경질	3.67	꾸미는	5.47	둔한	3.28	힘센	5.61
	성실한	3.60	예쁜	5.15	잘난척	3.48	바지	5.52
	순종적	3.58	긴머리	5.13	이기적	3.41	강인한	5.41
비전형-비전형	내성적	3.55	조용한	3.80	고집	5.59	여유	3.65
	냉정한	3.53	계산적	3.70	똑똑한	3.58	나약한	2.60
	이중적	3.50	신경질	3.67	거친	3.26	둔한	3.28
	구두	3.49	성실한	3.60	날카로운	3.16	잘난척	3.48
	소극적	3.36	순종적	3.58	무식한	2.97	이기적	3.41

* 전형성 평정치 7점 (1점 가장 비전형, 7점 가장 전형)

부록 2. 실험 2에서 사용된 선호도에 따른 점화단어와 전형성에 따른 목표단어

점화단어	선호	전형	남성목표	전형	여성목표	전형
1 배려하다	6.42	3.69	군대간다	1.36	화장하다	6.40
2 책임감이있다	6.35	3.48	수염이있다	1.51	가슴이있다	5.91
3 능력있다	6.35	3.23	힘이세다	2.01	꾸미다	5.81
4 사랑스럽다	6.31	5.71	바지를입는다	3.21	눈물이있다	5.51
5 건강하다	6.27	1.90	강인하다	2.57	머리가길다	5.92
6 속이넓다	6.20	3.38	건강하다	1.90	치마를입는	6.58
7 능동적이다	6.19	3.69	명예욕이있다	2.62	감성적이다	5.21
8 소중하다	6.14	4.70	어깨가넓다	1.87	감각적이다	4.97
9 아름답다	6.12	6.03	권력적이다	1.87	요리하다	5.01
10 성실하다	6.05	3.51	돈을벌다	3.53	애교스럽다	6.12
11 자상하다	6.01	2.81	성취적이다	2.82	다이어트한다	5.82
12 여유롭다	6.00	3.91	술을마신다	3.40	예민하다	5.34
13 당당하다	5.95	3.64	주도적이다	3.10	섬세하다	5.34
14 따뜻하다	5.95	4.61	티프하다	1.99	여우같다	6.31
15 발랄하다	5.94	5.78	운동을한다	2.94	섹시하다	5.57
16 적극적인이다	5.91	3.86	근육질이다	1.51	부드럽다	4.97
17 멋있다	5.88	2.75	도전적이다	3.21	수다스럽다	5.60
18 활동적이다	5.88	3.55	튼튼하다	2.73	세심하다	4.70
19 다정다감하다	5.81	3.68	씩씩하다	2.20	우아하다	5.87
20 예쁘다	5.77	6.16	듬직하다	2.10	꼼꼼하다	5.18
21 신경질적이다	1.80	5.10	매너있다	2.70	도전적이다	3.21
22 독선적이다	1.92	3.33	단순하다	3.18	고집스럽다	3.77
23 잔인하다	2.00	2.79	허풍뎌다	2.53	구두를신는다	4.31
24 질투한다	3.24	5.21	무뚝뚝하다	2.53	이중적이다	4.05
25 보수적이다	3.08	3.01	외형적이다	3.50	냉정하다	3.88
26 바람핀다	2.05	2.49	다혈질이다	3.06	내성적이다	4.62
27 복잡하다	3.27	4.62	딱딱하다	2.97	지조있다	3.74
28 허영심이있다	2.31	4.74	냉철하다	3.08	이성적이다	3.83
29 권위적이다	2.25	2.00	사납다	3.32	조용하다	4.38
30 순종적이다	3.24	5.43	똑똑하다	4.22	침착하다	4.25
31 내숭떨다	2.59	5.92	냉정하다	3.88	얌전하다	5.52
32 늑대같다	2.62	1.37	둔하다	3.32	차분하다	5.17
33 과격하다	2.67	1.91	날카롭다	3.97	분위기있다	4.09
34 소극적이다	2.74	4.61	무식하다	3.21	우악스럽다	3.50
35 담배를핀다	2.85	2.81	나약하다	5.06	하얗다	5.49
36 계산적이다	2.88	4.27	색을밝힌다	2.21	다소곳하다	6.13
37 갈대같다	2.89	5.74	이중적이다	4.05	깔끔하다	5.13
38 까다롭다	2.90	4.83	잘난척한다	3.83	연약하다	5.78
39 빠지다	3.31	5.56	무신경하다	2.91	귀엽다	5.18
40 고집이세다	3.05	4.11	이기적이다	4.09	거칠다	3.99

* 점화단어의 선호도: 긍정단어는 평균이 6.07이었고, 부정단어의 평균이 2.68이었다.
 목표단어의 전형성: 여성의 전형단어는 5.74이었고, 비전형단어는 4.29이었다.
 반면에 남성의 전형단어는 2.24이었고, 비전형단어는 3.55이었다.